[여전도회 주일 취지문]

어머니의 기도와 헌신으로 일구어진 선교의 유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시편 126:5)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도회'라는 이름은 익숙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깊은 역사적 무게를 다 알지 못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남선교회''와 달리 왜 '여전도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지 궁금해 하는 청년 세대에게, 그리고 이 주일을 함께 지키는 모든 성도님께 여전도회주일 속에 담긴 뜨거운 사랑과 헌신의 발자취를 전하고자 합니다.

1. '전도'의 불꽃으로 시작된 이름

여전도회의 역사는 **1898년 평양 널다리골 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63명의 교회여성들은 암울한 시대적 아픔 속에서 체념하며 살아가던 이 땅의 여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전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모였습니다. 비록 경제력은 넉넉하지 않았으나, 그들은 **'성미(誠米)'를 모아 선교비를 책임졌고, 돈이 없으면 '날 연보(날짜를 정해 몸으로 전도하는 헌신)'**를 드려 복음을 전했습니다. **1928년 본교단 총회에서 공식 승인된 '여전도회'라는 명칭** 안에는 이렇듯 직접 발로 뛰며 영혼을 구원하고자 했던 신앙 선배들의 열정적인 전도와 선교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2. 고난의 시대, 소망의 통로가 된 해외 선교

「여전도회주일」은 1930년대, 일제의 수탈로 인해 만주와 러시아로 흩어진 유랑민들의 비참한 소식으로부터 기원합니다. 여전도회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김순호, 윤정희, 한가자 선교사 등을 파송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남존여비(男尊女卑)의 유교적 색채가 강해 선교의 불모지라 불리던 중국 산둥 지역에 여전도회가 전담 후원으로 여성선교사를 파송한 일은, 한국 교회사에 길이 남을 기록입니다. **1936년 본 교단 제25회 총회 당시,** 선교 현장에서 돌아온 **김순호 선교사의 감격적인 보고**를 받은 모든 총대는 뜨거운 박수로 화답하였고, 여전도회의 헌신적인 해외 선교를 격려하기 위해 매년 **1월 셋째 주일을 「여전도회주일」로 제정**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계승해야 할 아름다운 전통, 그리고 새로운 비전

「여전도회주일」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의 할머니와 어머니 세대가 눈물로 뿌린 선교의 역사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전도에 앞장섰던 **수많은 여성들의 자발적 헌신과 열정을 일깨우는 날**입니다. 또한 교회여성들이 한마음으로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의 선교 비전을 함께 꿈꾸는 날**입니다. 모든 교회가 이날을 지키며, **어머니와 딸들의 아름다운 선교의 전통이 세대를 넘어** 이어져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과 기도가 모일 때, 129년 전 **엽전 한 닢과 쌀 한 수저로 시작된 복음의 기적**이 **오늘 우리 세대에서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비전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6년 1월 17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여전도회전국연합회 회장 이난숙 장로